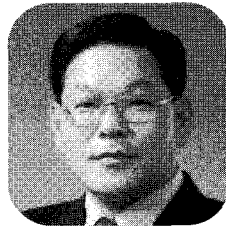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온 소농, 우리 농정에 대한 교훈

- 영암신문 기고문



한농연 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신명운

**최** 근 유럽연합 국가들의 선진 농정을 견학하고 돌아온 서정의 중앙회장으로부터 한 권의 작은 책을 소개받아 읽어 본 소감을 적고자 한다. 녹색평론사에서 발간된 「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 小農」이라는 제목의 번역서였다. 일본 돗토리대학 농학부 교수를 역임했던 쓰토 유키토씨가 발간했던 책이었는데, 영남대학교 농대 교수이자 대구한살림 회장인 성삼경씨가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이미 1991년에 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너무나 아쉬웠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었던 시기, 미국의 쌀시장 개방 압력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이 막대한 생산력을 지닌 밀을 중국에 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일본 농업의 현안을 뛰어 넘어 해외 농업의 흐름을 읽고, 10여년 후의 우리나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중국발 곡물파동까지 예측한 저자의 혜안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녕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는 없었던 것이었는가?

저자는 석기시대 이후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의 쌀농업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소농구조만이 지니는 생태적·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각종 역사자료와 실증 자료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논농업이 평야지역, 준산간지역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리하여 시군·읍면 차원의 특성은 물론 각 필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1만 5천여년 된 탄화된 볍씨가 발견되면서 쌀농업의 유구한 역사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입증되었다지만, 오랜 기간동안 우리 조상들과 350만 농민들은 자연 원리에 순응하면서도 농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위자연(人爲自然)'의 환경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조상들은 중산간지역에는 논을 만들기 위해 계단논을 만들었고, 강 주변의 습지와 갈

대밭을 개간해 나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작물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논밭을 갈고 저수지와 보를 만들어 물을 대고 퇴비를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풍화작용과 물질의 순환 과정을 촉진시켰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작물의 종자를 교배하고 육종해서 새로운 종과 작목을 만들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독특한 농업생산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농업은 어떠한가? 석유 자원과 각종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현대의 공업화된 대규모 농업은 환경 파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우리 농민들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WTO나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 350만 농민들은 점점 더 돈벌이를 위한 농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익성 높은 각종 상업작물의 재배를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 작물마저도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폭락과 자연재해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같은 상업적 영농을 위한 농업 재편의 이면에는, 가구당 1억 4천만원이 넘는 농업경영인들의 농가부채의 실상, 애기 울음소리가 그쳐 48세 노총각 농민들이 청년 취급을 받는 농촌의 현실, 매년 가을 농민 집회에서 찢겨지고 절규하며 울부짖는 농민들의 피눈물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무방비로 내몰리면서 해체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슬픈 자화상인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자는, 전통적인 소농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저자가 내린 결론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독자들이나 농민들도 많을 것이다. 또 만만치 않은 농학 및 재배학에 관련된 내용 또한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거리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 속에서 눈덩이 같은 농가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우리 삶터와 일터인 국토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낫설기만 한 일본인 저자가 외치고 있는 주장을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ha 규모 7만호의 쌀 전업농만 있으면, 80만 ha의 쌀농사만 지으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료들의 문서 속에 박제화되지 않은, 생생한 농촌과 농민의 실상을 얘기하며 진심을 터놓고 밤새도록 토론해 보고 싶은 바람이 더욱 간절해진다.

내 자신이 비록 선도적인 농업경영인이라 소리 듣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가 책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일화는 나의 마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번 글 말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패색이 짙어진 1944년, 해군 비행부대에 들어가서 사악한 미국·영국을 물리치겠다고 중학교 3학년의 철없던 저자를 일깨웠던 분이 바로 '영세 소농'이었던 저자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1920년대에 구입했던 미국제 전정가위가 1940년대 중반까지 새 것처럼 끄떡없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망한다는 예언을 하며 저자의 명분없는 군 입대를 막고자 애썼던 해안을 지닌 농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의 패망 이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던져준 담뱃갑을 불 속에 던지며, "나라는 졌어도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거지같이 시궁창에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없다"던 강직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우리 350만 농민, 정부 관료와 농협 직원, 농관련 기관과 공기업 종사자들 모두가, 자연과 호흡하는 오랜 농사일 속에서 얻은 해안과 깊이 있는 인생관을 지닌 농민과 같은 자세를 지니고, 좀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인농연**